

竇漢卿의 標幽賦에 대한 연구 (II)

원진희 · 이인영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비계내과

A Literature Review on Pyoyubu(標幽賦) Written by Tu hankyong(竇漢卿) (II)

Jin-Hee Won, In-Young Lee

Dept. of Internal medicine, Wonkwang Hospital,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Pyoyubu (標幽賦), one of the classics in the scienc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as written by Tu hankyong (竇漢卿) during the Kum-Won dynasty of China (A.D 1196-1280). This paper is to explore his academic thoughts and make its correct interpretation with new copious notes.

Methods : The translation was based on Original Chimgudaesung (原本鍼灸大成) and revisals of Chimguchuiyoung (鍼灸聚英), Yuyoungbuik (類經附翼), New Chimgudaesung (新鍼灸大成), etc. The format of this paper is in poetry and prose in order to abide by the original text.

Results and Conclusions : The final part is devoted to five critical thinking on the text, which provid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clinical guidelines for the current theory of acupuncture.

Key words : Pyoyubu, Tu han-kyoung, Manipulation of Acupuncture, Biaoben & Geungyul (標本根結), Needling-prohibited points

I. 서 론

標幽賦는 金、元시기의 竇漢卿이 지은 鍼灸歌賦로 標는 揭出, 顯出의 뜻이고¹⁾, 幽는 微妙, 深遠의 뜻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미묘한 내용을 歌賦의 형식을 빌어 간단명료하게 밝히고 드러내어(標舉) 침구학술의 오묘함(幽微)을 발견하였으므로 標幽賦라고 명명한 것이다²⁾.

金、元시대에 鍼灸에 정통했던 竇漢卿은 본 賦에서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鍼灸經絡, 氣血流

注, 候氣, 論鍼, 取穴, 標本論治, 特定穴位, 補瀉手技法, 禁鍼禁灸穴, 子午流注 등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현대 침구이론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활발한 原文研究나 註解를 다룬 연구 자료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본 연구를 통해 鍼灸이론의 근원을 파악하고 임상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여 침구치료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一助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교신저자: 원진희, 광주시 남구 주월동 543-8번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제 3내과
Tel. 062-670-6417, E-mail: wonjh@wku.ac.k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Grant [2011]
· 투고 : 2011/04/22 심사 : 2011/06/08 채택 : 2011/08/18

II. 연구방법

1) 徐復 등, 古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2003, 1553쪽.
2)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앞의 책, 175쪽.

1. 원문은 《原本鍼灸大成》³⁾에 의거하였다.
2. 校勘은 高⁴⁾의 《鍼灸聚英》과 張⁵⁾의 《類經附翼》과 林⁶⁾의 《新鍼灸大成》, 그리고 《鍼灸大成校釋》⁷⁾을 참고하여 校勘하였다.
3. 字句解는 원문의 뜻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音과 訓을 取擇하였다.
4. 註解는 원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 楊繼洲의 註解를 인용하였다.
5. 번역은 賦體에 맞게 詩文의 형식으로 하였다.
6. 고찰은 원문이나 校勘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지난 3월호에 이어서)

【원문】 豈不聞⁽¹⁾臟腑病，而⁽²⁾求門海⁽³⁾俞⁽⁴⁾募⁽⁵⁾之微；經絡滯，而求⁽⁶⁾原⁽⁷⁾別⁽⁸⁾交⁽⁹⁾會⁽¹⁰⁾之道。

【校勘】

- ① 而：《類經附翼》에는 없다.
- ② 而求：《類經附翼》에는 ‘索’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豈不聞：어찌 ~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즉 嘗聞(일찍이 듣건대)의 뜻이다. 發語詞이다.

(2) 門海：은몸의 腧穴 중에 ‘門’과 ‘海’로 命名한 穴을 말하니, 門穴은 經氣가 출입하는 門호이고, 海穴은 經氣가 돌아가는 곳이다. ○門穴은 모두 22개가 있는데, 耳門·啞門 등 머리에 2개, 鄰門·液門·神門 등 상지에 3개, 箕門·衝門·殷門·金門 등 하지에 4개, 關門·滑肉門·雲門·章門 등 가슴에 4개, 幽門·石門·京門·期門·梁門 등 복부에 5개, 魂門·肓門·風門·命門 등 배부에 4개가 있다. ○海穴은 血海·少海·照海·小海·氣海 등 5개이다.

(3) 俞：足太陽膀胱經의 背部에 있는 臟腑背腧

穴이니, 모두 12개이며 오장육부의 氣가 輸轉하는 곳이다. 肝俞·心俞·脾俞·肺俞·腎俞·厥陰俞·膽俞·胃俞·膀胱俞·大腸俞·小腸俞·三焦俞. ○俞는 腧, 輸와 통용하며, 한의학에서는 ‘수’라고 읽는다.

(4) 募：募穴. 오장육부의 氣가 聚集하는 穴이다. 肺募中府, 心募巨膠, 肝募期門, 脾募章門, 腎募京門, 胃募中脘, 膽募日月, 大腸募天樞, 小腸募關元, 三焦募石門, 膀胱募中極.

(5) 原：原穴은 五俞穴의 일종이다. 手足三陽經에는 모두 1개씩 原穴이 있다. 그 위치는 腕이나 踝關節의 부근에 있다. 인체의 원기가 留止는 곳이다. 陰經에는 原穴이 없고 俞穴로 原穴을 대체한다. 膽原丘墟, 肝原太衝, 小腸原腕骨, 心原神門, 胃原衝陽, 脾原太白, 大腸原合谷, 肺原太淵, 膀胱原京骨, 腎原太溪, 三焦原陽池, 包絡原大陵.

(6) 別：陽別이다. 곧 陽經에서 갈라져 나온 別絡이니, 手太陽之別은 名曰支正이요, 足太陽之別은 名曰飛陽이요, 手少陽之別은 名曰外關이요, 足少陽之別은 名曰光明이요, 手陽明之別은 名曰偏歷이요, 足陽明之別은 名曰豐隆이다.

(7) 交：陰交이다. 곧 陰經에서 갈라져 나와 陽經과 交會하는 別絡이니, 手太陰之別은 名曰列缺이요, 足太陰之別은 名曰公孫이요, 手少陰之別은 名曰通里이요, 足少陰之別은 名曰大鐘이요, 手厥陰之別은 名曰內關이요, 足厥陰之別은 名曰蠡溝이다. ○陽別과 陰交는 十二經의 絡脈을 가리킨다.

(8) 會：八會이다. 血會膈俞, 氣會膻中, 脈會太淵, 筋會陽陵泉, 骨會大杼, 髓會絕骨, 臟會章門, 腑會中脘.

【국역】

일찍이 듣건대

장부의 질병에는 문·해혈(門海穴)과 수·모혈(俞募穴)의 묘함을 궁구하고

3) 楊繼洲, 앞의 책, 38~50쪽.

4) 高武, 鍼灸聚英,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210~231쪽.

5) 張景岳, 類經附翼(類經圖翼), 大成文化社, 1982, 285~287쪽.

6) 林昭庚, 新鍼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108~150쪽.

7)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앞의 책, 172~213쪽.

경락이 막힌 데는 원·별혈(原別穴)과 교·회혈(交會穴)의 이치를 탐구하라.

【원문】更窮四根⁽⁹⁾三結⁽¹⁰⁾，依標本而刺無不痊；但依⁽¹¹⁾八法⁽¹¹⁾五門⁽¹²⁾，分主客⁽¹³⁾而鍼無不效。

【校勘】

③ 依：《類經附翼》과 《鍼灸聚英》과 《鍼灸大成校釋》과 《新鍼灸大成》에는 모두 ‘用’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9) 四根：經氣가 起源(起始)하는 곳을 ‘根’이라 하는데, 經氣는 모두 四肢의 末端에서 起源하므로 ‘四根’이라 한다. 經脈은 四肢末端의 井穴을 根으로 삼는다.

(10) 三結：經氣가 結聚(歸結)하는 곳을 ‘結’이라 하는데, 經氣는 모두 頸以上과 胸·腹에 結聚하므로 ‘三結’이라 한다. 經脈은 頭, 胸, 腹 三부를 結로 삼는다. 임상에서 四肢의 穴을 취하여 頭面과 胸腹의 諸病을 치료하는 것은 곧 根結의 關係에 근거한 것이다.

(11) 八法：○침의 八法은 첫째 迎隨요, 둘째 轉鍼이요, 셋째 手指요, 넷째 鍼投요, 다섯째 허실이요, 여섯째 動搖요, 일곱째 提按이요 여덟째 호흡이다. ○몸의 辨法은 奇經八脈이니, “공손은 膹맥으로 위와 심흉을 주관하고” 등의 8구절이 이것이다.

(12) 五門：甲己, 乙庚, 丁壬, 戊寅, 丙辛을 가리킨다. 혹은 井·榮·俞·經·合을 ‘五門’이라고 한다.

(13) 主客：配穴用語. 鍼灸 配穴에서 主要穴을 ‘主’라 하고, 配伍穴을 ‘客’이라 한다. 하나의 主穴과 하나의 客穴을 배합하는 것을 “主客相應”이라 한다. 八脈交會穴 중에서는 公孫主、內關客이요 臨泣主、外關客이요 後溪主、申脈客이요 列缺主、照海客이다. 또한 原穴과 絡穴의 배합도 있는데, 이것을 ‘主客原絡配穴’이라 한다.

【국역】

四根과 三結을 궁구하고 標本에 의거하여 자침

하면 낮지 않음이 없으며

八法과 五門을 사용하고 主客을 구분하여 자침하면 효과 없음이 없다네.

【원문】八脈始終連八會，本是紀綱⁽¹⁴⁾；十二經絡十二原，是爲樞要⁽¹⁵⁾。

【字句解】

(14) 紀綱：국가의 법. 다스림. 綱領.

(15) 樞要：가장 요긴하고 중요로움.

【국역】

기경팔맥은 시종 八會와 이어져 기강이 되고 십이경락의 十二原穴은 치병의 要穴이라네.

【원문】一日取六十六穴之法⁽¹⁶⁾，方見幽微⁽¹⁷⁾；一時取十二經⁽¹⁸⁾之原⁽¹⁸⁾，始知要妙⁽¹⁹⁾。

【校監】

④ 十二經：《類經附翼》에는 ‘十二經脈’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6) 一日取六十六穴之法：이것은 ‘子午流注配穴法’ 중에서 ‘納干法’ 또는 ‘納甲法’이라고 한다. ○納干法：十二經을 十天干과 배합하는 것이다. 子午流注法에서 날짜가 속한 天干에 근거하여 某經의 五輸穴을 취하는 방법이다. 十二經과 天干의 배합은 “甲膽乙肝丙小腸, 丁心戊胃己脾鄉, 庚屬大腸辛屬肺, 壬屬膀胱癸腎臟, 三焦亦向壬中寄, 包絡同歸入癸方.”(《十二經納天干歌》)이다. ○六十六穴은 十二經의 井·榮·俞·原·經·合穴이다.

(17) 幽微：深遠하고 隱微함. 그윽하고 미묘함. 여기서는 ‘신묘한 효과’를 뜻한다.

(18) 一時取十二經之原：이것은 子午流注取穴法 중에서 ‘納支法’ 또는 ‘納子法’이라고 한다. ○納支法：十二經과 十二地支를 배합한 것이다. 곧 十二經脈의 流注 順序를 十二時辰에 배합하여 그 시간이 되면 그 母穴에 자침하여 補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子穴에 자침하여 瀉하는 방법이다.(子母補瀉法) 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經脈의 原穴을

자침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寅時에 氣血이 肺로 流注하면 膻堂 肺經의 原穴인 太淵을 취한다.

(19) 要妙 : 중요하고 오묘함.

【국역】

하루 동안 六十六穴의 방법을 쓰면 신기함을 볼 수 있고

한 시진에 십이경맥의 原穴을 쓰면 오묘함을 알 수 있네.

【원문】 原夫⁽²⁰⁾補瀉之法, 非呼吸而在⁽²¹⁾手指; 速效之功, 要交正⁽²¹⁾而識⁽²²⁾本經.

【校勘】

⑤ 在 : 《類經附翼》에는 ‘在乎’로 되어 있다.

⑥ 識 : 《類經附翼》에는 ‘辨得’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20) 原夫 : 살피건대 무릇. 發語詞이다. ○原은 察也, 살필 원.

(21) 交正 : 交經과 正經. 正經은 十二經絡이다. 交經은 交叉하는 經絡이니, 곧 本經의 병과 관련 있는 經絡이다. ○本經의 腧穴을 취하여 本經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本經取穴’, 또는 ‘正經取穴’이라 한다. 本經과 相合하는 經脈의 腧穴을 兼用하는 것을 ‘交經配穴’이라 한다. 예를 들면 肺經에 병이 있으면 肺經의 腧穴을 취하고 또 大腸經의 腧穴을 兼用하는 것이다.

【국역】

보사의 방법은 호흡뿐만 아니라 손가락에 달려 있고

속효엔 交經과 正經이 필요하니 병든 經을 알아 보게.

【원문】 交經繆刺⁽²²⁾, 左有病而右畔⁽²³⁾取; 瀉絡⁽²⁴⁾遠鍼⁽²⁵⁾, 頭有病而脚上鍼.

【校勘】

⑦ 遠鍼 : 《類經附翼》에는 ‘遠導’로 되어 있다.

【字句解】

(22) 交經繆刺 : 繆는 交錯된 모양이니, 繆刺法

의 左病右取하고 右病左取하는 뜻과 매우 가깝다. 좌측의 병에는 우측의 脈絡을 淺刺하고 우측의 병에는 좌측의 맥락을 淺刺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配穴施鍼하는 것을 ‘交經繆刺’라고 칭한다. ‘交叉刺絡法’이라고도 한다.

(23) 畔 : 邊側의 뜻이니, 가령 江畔, 耳畔 등이 있다. 《楚辭》漁父에 “行吟澤畔”이라고 하였다.

(24) 瀉絡 : 삼릉침으로 絡脈을 淺刺하여 出血시키는 것을 ‘瀉絡法’이라 한다. 대개 血瘀氣滯證에 사용한다.

(25) 遠鍼 : 《內經》에서 말한 ‘遠刺法’인데, 어떤 사람은 ‘遠鍼法’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일종의 循經取穴法이다. “病在上而下取之, 病在下而高取之, 病在頭者, 取之足, 病在腰者, 取之膕” 등은 모두 遠鍼法이다.

【국역】

「교경무자법」은 왼쪽에 병이 있는데 오른쪽에서 取穴하고

「사락원침법」은 머리에 병이 있는데 다리 위에 침을 놓네.

【원문】 巨刺⁽²⁶⁾與繆刺各異; 微鍼⁽²⁷⁾與妙刺⁽²⁸⁾相通.

【字句解】

(26) 巨刺 : 刺法の 명칭. 몸의 한쪽에 병이 있을 때 반대쪽의 穴에 자침하는 방법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응용한다. (1) 몸의 한쪽에 통증이 있는데, 반대쪽 脈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2) 經脈에 병이 있는 경우.

(27) 微鍼 : 刺之巧, 자침이 공교한 것이다.

(28) 妙刺 : 鍼之妙, 자침이 교묘한 것이다.

【국역】

「거자」와 「무자」는 각각 다르나

「미침」과 「묘자」는 서로 통하네.

【원문】 觀部分而知經絡之虛實; 視沈浮⁽²⁹⁾而辨⁽³⁰⁾臟腑之寒溫.

【校勘】

⑧ 沈浮 : 《類經附翼》과 《鍼灸聚英》에는 ‘浮沈’으로 되어 있다.

⑨ 辨 : 《類經附翼》에는 ‘見’으로 되어 있다.

【국역】

부분을 살펴서 경락의 허실을 알아내고 부침을 살펴서 장부의 한온을 구별하게.

【고찰】 莊育民의 《鍼灸大成講義》에 의하면 ‘脈의 沈浮’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맥이 沈實하면 寒證이고, 浮大하면 熱證이다⁸⁾. (《新鍼灸大成》) 楊註에는 “침을 놓은 뒤에 鍼氣의 완급을 살펴서 장부의 한열을 결정할 수 있다.”⁹⁾라고 하였는데, 鍼氣는 곧 得氣를 말한다. 脈의 沈浮과 得氣의 浮沈을 같이 참고하여 寒熱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원문】 且夫⁽²⁹⁾先令鍼耀⁽³⁰⁾而慮⁽³¹⁾鍼損; 次藏口內而欲鍼溫.

【字句解】

(29) 且夫 : 語氣詞. 구의 첫머리에 쓰이고 의논하려 함을 나타내며 화제를 제시한다. 해석할 필요는 없다.

(30) 耀 : 光也, 빛날 요.

(31) 慮 : 錄과 통용. 調查, 사실할 록.

【국역】

먼저 침을 광택 내어 상했는지 살펴보고 다음 침을 입에 물어 따뜻하게 사용하게.

【원문】 目無外視, 手如握虎⁽³²⁾; 心無內慕⁽³³⁾, 如待貴人.

【校勘】

⑩ 內 : 《類經附翼》에는 ‘私’로 되어 있다.

【字句解】

(32) 手如握虎 : 《素問·鍼解篇》¹⁰⁾에 “手如握虎

者, 欲其壯也.”라고 하였다.

【국역】

눈은 밖을 보지 말고 손은 범을 잡은 것처럼 하며 마음은 안을 그리워 말고 귀인을 기다리듯이 하라.

【원문】 左手重而多按⁽³³⁾, 欲令氣散; 右手輕而徐入, 不痛之因.

【字句解】

(33) 按 : 下壓, 누를 안. 여기서는 左手의 大指 爪甲으로 爪切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역】

왼손에 힘을 주어 여러 번 누르면 기가 흩어지고 오른손을 가볍게 천천히 刺入하면 통증이 없구나.

【원문】 空心⁽³⁴⁾恐怯, 直立側而多暈; 背目⁽³⁵⁾沈掐⁽³⁶⁾, 生⁽³⁷⁾臥平而沒⁽³⁷⁾昏.

【校勘】

⑪ 生 : 《類經附翼》과 《鍼灸大成校釋》에는 ‘坐’로 되어 있다. 《鍼灸聚英》에는 ‘從’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34) 空心 : 公복.

(35) 背目 :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봄.

(36) 沈掐 : 沈重하게 후빈다는 뜻이다. ○掐은 摘取, 딸 걸. 여기서는 후빈다는 뜻이다.

(37) 沒 : 無也, 없을 몰.

【국역】

공복이나 두렵거나 직립이나 측와하면 鍼暈이 생기나 背目하며 重切하고 평좌 혹은 平臥하면 昏悶이 없다네.

【고찰】 ‘生臥平’은 ‘坐臥平’이 옳다. 楊註에 “或臥或坐”라고 한 것을 보면 楊의 依據本에는 ‘坐’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林昭庚, 앞의 책, 136쪽.

9) 言下鍼之後, 看鍼氣緩急, 可決臟腑之寒熱也.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93쪽.

【원문】推於十干⁽³⁸⁾十變⁽³⁹⁾，知孔穴⁽⁴⁰⁾之開闔⁽⁴¹⁾；論其五行五臟，察日時^②之旺衰^[1]。

【校勘】

② 日時：《類經附翼》과 《鍼灸聚英》에는 ‘時日’로 되어 있다.

【字句解】

(38) 十干：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39) 十變：十干에 근거하여 매일 穴道의 開闔 위치가 변화하는 것이다.

(40) 孔穴：腧穴. 經穴.

(41) 開闔：열고 닫음. 楊註에 “得時謂之開，失時謂之闔”이라고 하였다.

【註解】

[1] 察日時之旺衰：楊註에 “여기서는 병이 그 당시의 일시에서 오행의 상생을 얻으면 왕성하여 호전되고 오행의 상극을 얻으면 쇠약하여 악화됨

을 말한 것이다. 가령 심병이 甲乙의 일시를 만나면 상생이니 호전되고 壬癸의 일시를 만나면 상극이니 악화된다.”¹¹⁾라고 하였다.

【국역】

‘십간’과 ‘십변’을 헤아려서 공혈의 개합을 알아 내고

‘오행’과 ‘오장’을 의론하여 일시의 성쇠를 관찰하게.

【고찰】 본 단락의 취지는 十干十變과 배합하여 取穴하는데 있으며, 임상에서 取穴할 때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이고, 아울러 穴位의 開闔 時日을 미리 알 수 있다. 이것을 「子午流注鍼法」이라 한다. 「子午流注時間配穴法」에는 十二正經에서 66穴을 取하는 納干法이 있고, 十二正經에서 原穴을 취하는 納支法이 있으며, 奇經八脈을 이용하는 納卦法이 있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는 다음과 같다.

子午流注鍼法の 분류표

명칭		本賦의 原句	사용하는 경맥	사용하는 혈	비고
正稱	別稱				
納干法	納甲法	一日取六十六穴之法	十二正經	各 經의 井榮俞經合이니 모두 66穴	협의의 子午流注法임
納支法	納子法	一日取一十二經之原	十二正經	(1) 시간에 의거 十二經의 原穴을 사용 (2) 시간에 의거 本經중에서 補母 瀉子法으로 取穴	
納卦法	靈龜八法	但依八法五門 推於十干十變	奇經八脈	奇經八穴	寶氏八法流注

【원문】狀^②如橫弩⁽⁴²⁾，應若發機⁽⁴³⁾。

【校勘】

③ 狀：《鍼灸大成校釋》과 《新鍼灸大成》，《鍼灸聚英》，《類經附翼》에는 모두 ‘伏’으로 되어 있다. 伏은 執伏의 뜻이다.

【字句解】

(42) 橫弩：쇠뇌. 석궁. 쇄뇌나 석궁은 橫狀으로 놓고 활을 쏘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43) 發機：기계를 발동시킴. 즉 방아쇠를 당긴다는 뜻이다.

【국역】

침놓는 모양은 쇄뇌와 같고 그것의 반응은 방아쇠 같네.

【원문】陰交⁽⁴⁴⁾陽別⁽⁴⁵⁾而定血暈⁽⁴⁶⁾，陰躄陽維^④而下胎衣⁽⁴⁷⁾。

11) 此言病於本日時之下，得五行生者旺，受五行克者衰。如心之病，得甲乙之日時者生旺，遇壬癸之日時者克衰。

【校勘】

⑭ 陽維 : 《鍼灸聚英》과 《類經圖翼》에는 ‘陰維’로 되어 있다.

【字句解】

(44) 陰交 : 하나는 배꼽에서 1치 아래에 있고, 하나는 안쪽 복사뼈에서 3치 위에 있는데 ‘삼음교’라고 부른다.

(45) 陽別 : 어느 穴인지 명확하지 않다. 陳璧疏의 설명에 의하면 三焦經의 原穴인 陽池이다. 三焦의 原氣는 生命의 源泉이므로 이 穴을 사용하여 益氣固本하면 血量을 치료할 수 있다. 陽池의 別名은 ‘別陽’이다.

(46) 血量 : 산후의 어지럼증인데, 출혈과다로 인한 경우와 어혈로 인한 경우가 있으며, 출혈과다로 인한 경우가 많다. 産後에 惡露去少로 瘀血이 정체하여 위로 공격하여 暈暈이 발생한 경우는 얼굴과 입술이 적색을 띠고, 출혈과다로 脫血이 되어 眩暈이 발생한 경우는 얼굴과 입술이 창백하다.

(47) 胎衣 : 胞衣. 태의 겹질. 태아를 싸고 있는 막과 그 태반.

【국역】

‘음교’와 ‘양별’은 血量을 멎게 하고

‘음교’와 ‘양유’는 胎衣를 내린다네.

【고찰】 《鍼灸大成校釋》에 의하면 “《鍼灸大全》과 《楊敬齋鍼灸全書》에는 모두 照海와 內關을 사용한다.¹²⁾”고 하였는데, 照海는 陰驕脈에 속하고 內關은 陰維脈에 속하므로 응당 《類經附翼》에 의거 ‘陽維’를 ‘陰維’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문】痺厥⁽⁴⁸⁾ 偏枯⁽⁴⁹⁾, 迎隨⁽⁵⁰⁾ 俾經絡接續; 漏崩帶下, 溫補⁽⁵¹⁾ 使氣血依歸⁽⁵²⁾.

【字句解】

(48) 痺厥 : 四肢厥冷麻痺. 팔다리가 차고 마비되는 것이다.

(49) 偏枯 : 중풍의 반신불수.

(50) 迎隨 : 迎隨補瀉.

(51) 溫補 : 여기서는 ‘溫鍼補之’를 가리킨다.

(52) 依歸 : 歸依. 돌아가 의지함. 여기서는 ‘歸經’, 즉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국역】

‘비결’과 ‘편고’는 迎隨法으로 경락을 이어주고

‘붕루’와 ‘대하’는 溫補法으로 기혈을 돌려주게.

【원문】靜以久留, 停鍼待之.

【국역】

조용히 오래 留鍼하니

침을 멈추어 기다리네.

【고찰】 경험에 의하면 남자, 장년, 實證, 寒證의 경우에는 오래도록 留鍼하는 것이 좋고, 여자, 老幼, 虛證, 熱證에는 오래도록 留鍼하는 것이 좋지 않다. 또한 침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피곤함을 느끼거나 暈鍼이 발생하면 곧 침 치료를 중단해야 의료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¹³⁾.

【원문】必准⁽⁵³⁾者⁽⁵⁴⁾, 取照海, 治喉中之閉塞; 端的⁽⁵⁴⁾處, 用大鐘, 治心內之呆痴.

【校勘】

⑮ 者 : 《類經附翼》에는 ‘處’로 되어 있다.

【字句解】

(53) 准 : 依據, 比照, 본받을 준. 따를 준.

(54) 端的 : 바름. 명백함. 과연.

【국역】

본받을 것은 ‘조해’로 목구멍의 폐색을 치료하는 것이요

명백한 것은 ‘대중’으로 마음속의 치매를 치료하는 것일세.

【원문】大抵疼痛實瀉, 痺麻虛補.

【국역】

욱신거리고 아픈 것은 실증이니 瀉法을 쓰고

12)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앞의 책, 204쪽.

13) 林昭庚, 앞의 책, 141쪽.

가렵고 마비된 것은 허증이니 補法을 쓰게.

【원문】體重節痛⁽⁵⁵⁾而愈居⁽⁵⁶⁾，心下痞滿⁽⁵⁷⁾而井主。

【字句解】

(55) 體重節痛 : 온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픈 것. 《六十八難》에 “俞主體重節痛”이라고 하였다.

(56) 居 : 治理, 다스릴 거.

(57) 心下痞滿 : 오목가슴이 답답하고 그득한 것. 《六十八難》에 “井主心下滿”이라고 하였다.

【국역】

체중절통은 俞穴이 다스리고

심하비만은 井穴이 주관하네.

【고찰】○陰經의 俞穴은 土에 속하고 陽經의 俞穴은 木에 속한다. 脾는 土에 속하고 水穀의 運化를 주관하여 肢體를 濡養한다. 또한 脾는 肌肉을 주관하므로 脾가 병들면 體重節痛이 발생하는데, 陰經의 俞穴(土)을 자침하여 補脾하고, 陽經의 俞穴(木)을 자침하여 制脾해야 한다. 그러므로 體重節痛에 俞穴을 자침하면 낫는다. ○陰經의 井穴은 木에 속하고 陽經의 井穴은 金에 속한다. 肝經의 所生病은 주로 胸滿嘔逆이니, 陰經의 井穴(木)을 자침하여 舒肝하고 陽經의 井穴(金)을 자침하여 制肝해야 한다. 그러므로 心下痞滿은 井穴로 치료할 수 있다¹⁴⁾.

【원문】心脹⁽⁵⁸⁾咽痛，鍼太衝而必除；脾冷胃疼，瀉公孫而立愈。胸滿腹痛刺內關，脇疼肋痛^①鍼飛虎⁽⁵⁹⁾。

【校勘】

① 痛 : 《類經附翼》에는 ‘脹’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58) 心脹 : 병명. 寒邪가 心을 침범하여 心煩, 短氣, 臥不安 등의 증상이 생기는 병. 《靈樞·脹論》¹⁵⁾에 “夫心脹者, 煩心短氣, 臥不安.”이라고 하였

다.

(59) : 飛虎 : 支溝穴.

【국역】

心脹과 咽痛은 ‘태충’에 자침하면 없어지고

脾冷과 胃痛은 ‘공손’을 瀉하면 낫는다네.

흉만복통에는 ‘내관’을 자침하고

협측동통에는 ‘비호’를 자침하게.

【원문】筋攣骨痛⁽⁶⁰⁾而^①補魂門，體熱勞嗽⁽⁶¹⁾而^①瀉魄戶。頭風頭痛，刺申脈與金門；眼痒眼疼，瀉光明於地五⁽⁶²⁾。瀉陰郄止盜汗，治小兒骨蒸；刺偏歷利小便，醫大人水蠱⁽⁶³⁾。中風環跳而^①宜刺，虛損天樞而^①可取。

【校勘】

① 而 : 《類經附翼》에는 없다.

【字句解】

(60) 筋攣骨痛 : 힘줄과 근육이 경련하는 것과 뼈마디가 아픈 것. 肝은 筋(힘줄)을 주관하고 筋과 骨을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 ‘筋攣骨痛’하는 것이다. 이것은 肝經과 관련이 있고 또 肝藏魂하므로 魂門穴을 사용한다.

(61) 體熱勞嗽 : 久病의 陰虛發熱과 虛勞咳嗽를 가리킨다. 응당 滋陰清熱해야 한다. 이 병증은 肺와 관련이 있고 肺藏魄하므로 魄戶穴을 사용한다.

(62) 地五 : 地五會.

(63) 水蠱 : 병명. 水毒의 氣가 내부에 모여 복부가 점차 커지고 목소리가 떨리며 항상 물을 마시려 하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검어지는데, 마치 부은 것과 같으므로 水蠱라 한다.

【국역】

근련골통에는 ‘혼문’을 補하고

체열노수에는 ‘백호’를 瀉하게.

두풍과 두통은 ‘신맥’과 ‘금문’을 자침하고

안양과 안통은 ‘광명’과 ‘지오’를 瀉한다네.

‘음극’을 瀉하면 도한이 멎고 소아의 骨蒸을 다

14)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앞의 책, 205쪽.

15) 洪元植, 앞의 책, 178쪽.

스리며

‘편력’에 자침하면 이노하여 어른의 水蟲을 치료하네.

중풍은 ‘환도’에 자침하고
허손은 ‘천추’를 취해 쓰게.

【원문】由是⁽⁶⁴⁾午前卯後，太陰⁽⁶⁵⁾生而疾⁽⁶⁶⁾溫；離左西南⁽⁶⁷⁾，月朔⁽⁶⁸⁾死^⑧而速冷。

【校勘】

⑧ 月朔死：《類經附翼》에는 ‘月死朔’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64) 由是：따라서. 이로 인하여. 여기서는 發語詞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

(65) 太陰：달.

(66) 疾：速也, 빠를 질.

(67) 離左西南：離卦는 火에 속하고 南方에 거거하며 午에 해당한다. 西는 열 번째 十二支인데, 方位로는 西이고,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이다. 따라서 離方(南方)의 왼쪽에서 西方(西方)의 남쪽이니, 시간으로는 곧 午時부터 酉時 사이이다.

(68) 月朔：그 달의 첫날. 초하루. 여기서는 ‘太陰’, 곧 달을 가리킨다.

【국역】

오시 전 묘시 후는 달이 生하니 빨리 溫補하고
오시 후 유시 전은 달이 死하니 빨리 涼瀉하게.

【고찰】 고인들은 天人相應의 관점에 착안하여 인체의 氣血盛衰를 달의 盈虧에 비교하였는데, 달과 마찬가지로 주기성 변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하루를 한 달에 비유하였다. 매일 오전, 즉 진시와 사시(午前卯後)는 上半월에 비유하였는데, 이때는 달이 차오르는(由虧轉盈) 시기이므로 사람의 氣血도 충실해진다(由虛轉實). 매일 오후, 즉 미시와 신시(離左西南)는 下半월에 비유하였는데, 이때는 달이 이지러지는(由盈轉虧) 시기이므로 사람의 기혈도 허약해진다(由實

轉虛). 오전은 氣血의 기초가 虛하고 충실해지는 과정이므로 응당 그 형세를 도와서 補法을 써야 하고, 오후는 기혈의 기초가 實하고 허약해지는 과정이므로 응당 그 형세에 순응하여 瀉法을 써야 하고 補法을 써서는 안 된다. 「午前卯後」는 午前卯後의 시간을 달이 점차 성장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니, 마땅히 溫補를 해야 하고, 「離左西南」은 午後酉前의 시간을 달이 점차 消亡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니, 마땅히 涼瀉를 해야 한다. 날짜에 의거하여 침의 횟수를 증감하는 뜻은 없다.

【원문】循⁽⁶⁹⁾捫^{⑨(70)}彈努⁽⁷¹⁾，留吸母^[2]而堅長；爪下⁽⁷²⁾伸提⁽⁷³⁾，疾⁽⁷⁴⁾呼子^[3]而噓短。

【校勘】

⑨ 捫：《類經附翼》에는 ‘摸’로 되어 있다.

【字句解】

(69) 循：循法. 침을 놓은 뒤에 손으로 위아래를 어루만져서 기혈을 왕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70) 捫：捫法. 침을 뽑은 뒤에 손으로 그 穴을 문지르고 달아서 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71) 彈努：彈法. 손으로 가볍게 튕기어 虛를 補하는 것이다. 《素問·離合眞邪論》에는 ‘努’가 ‘怒’로 되어 있다. 둘은 相通한다.

(72) 爪下：切而下鍼. 손톱으로 후빈 다음 침을 놓는 것이다.

(73) 伸提：伸은 提의 뜻이다. 곧 提法이다. 이것은 《難經》의 “動而伸之”에 근거한 것이다. 按法(插法)과 상대되는 말로 침을 위로 물리는 동작이다. 《鍼灸問對》에 “欲瀉之時，以手捻鍼，慢慢伸提豆許¹⁶⁾”라고 하였다.

(74) 疾：여기서는 빨리 拔鍼하는 것이다.

【註解】

[2] 留吸母：楊註에 “虛하면 그 母를 보하고 열이 이르기를 기다린 뒤에 오래 숨을 들이쉬며 길게 견지하는 것이다.¹⁷⁾”라고 하였다.

16) 安徽·上海中醫學院, 앞의 책, 561쪽.

[3] 疾呼子：楊註에 “實하면 그子を瀉하고 힘써 한기가 이르기를 기다린 뒤에 빨리 침을 제거하며 짧게 숨을 내쉬는 것이다.¹⁸⁾”라고 하였다.

【국역】

循、捫、彈努하고 留鍼、吸氣、補母하되 오래 견지할 것이요

爪下、伸提하고 疾拔、呼氣、瀉子하되 짧게 숨을 내쉬다네.

【고찰】 본 단락은 補法과 瀉法을 말한 것이다. 補法은 緩而久한 것이 특징이며, 동시에 子母補瀉法과 呼吸補瀉法을 배합한 것이다. 緩進, 輕彈, 熱以久留, 出鍼捫穴 등은 補法이니, 久病의 허약한 환자에게 적합하다. 瀉法은 急而暫한 것이 특징이다. 補法과 마찬가지로 子母補瀉法과 呼吸補瀉法을 배합하여 사용한다. 急刺, 速提, 動而伸之, 寒至後呼時疾出其鍼 등은 瀉法이니, 實邪를 瀉하는데 적합하다.

【원문】 動退⁽⁷⁵⁾空歇⁽⁷⁶⁾, 迎⁽⁷⁷⁾奪⁽⁷⁸⁾右而瀉涼; 推內⁽⁷⁹⁾進⁽⁸⁰⁾搓⁽⁸¹⁾, 隨⁽⁸¹⁾濟⁽⁸²⁾左而補暖.

【校勘】

① 內：《鍼灸聚英》에는 ‘納’으로 되어 있는데, 둘은 相通한다.

【字句解】

(75) 動退：침을 흔들면서 후퇴하는 것이니, 가령 기가 돌지 않으면 침을 들어 올려야 한다.

(76) 空歇：손을 거두어 자침을 멈추는 것이다.

(77) 迎：역방향으로 자침하여 經氣를 맞이하는 것이다.

(78) 奪：그子を 瀉하는 것이니, 가령 심병에는 반드시 그 자식인 脾를 瀉해야 한다.

(79) 推內進：침을 밀어 넣는 것이다.

(80) 搓：선을 꼬는 모양과 같은데, 천천히 침을 돌릴 것이요 너무 빠빠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81) 隨：순방향으로 자침하여 經氣를 따라가

는 것이다.

(82) 濟：그母를 구제하는 것이니, 가령 심병에는 반드시 그 어미인 肝을 補해야 한다.

【국역】

動退、空歇하고 迎法、奪子、右旋하여 涼瀉하고 推納、指搓하고 隨法、濟母、左旋하여 溫補하네.

【역자주】 「動退空歇」은 瀉法을 써서 서늘함을 취하는 것이요, 「推內進搓」는 補法을 써서 열기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竇漢卿이 《內經》에 근거하여 涼熱手技法의 조작요령을 제시한 것인데, 《七十八難》에서 말한 “推而納之是謂補, 動而伸之是謂瀉”의 뜻과 부합한다. 取熱의 手技法은 “推內進搓, 左旋, 隨而濟之”인데, 그 특징은 힘을 크게 주고 안에 중점을 두어 按插에 치중하는 것이다. 取涼의 수기법은 “動退空歇, 右旋, 迎而奪之”인데, 그 특징은 힘을 가볍게 주고 밖에 중점을 두어 提鍼에 치중하는 것이다.

【원문】 慎之⁽⁸³⁾! 大患⁽⁸³⁾危疾⁽⁸⁴⁾, 色脈不順而⁽⁸⁵⁾莫鍼; 寒熱風陰⁽⁸⁵⁾, 飢飽醉勞而⁽⁸⁶⁾切忌.

【校勘】

① 慎之：《類經附翼》에는 없다.

② 大患：《類經附翼》과 《鍼灸聚英》에는 ‘大凡’으로 되어 있다.

③ 而：《類經附翼》에는 ‘者’로 되어 있다.

④ 而：《類經附翼》에는 ‘須’로 되어 있다.

【字句解】

(83) 大患：중한 병. 중병. 중환.

(84) 危疾：위독한 질병.

(85) 風陰：大風과 大陰雨.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몹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을 가리킨다.

【국역】

삼갈 지어다!

大患과 危疾에 안색과 맥이 불순하면 자침하지

17) 留吸母者, 虛則補其母, 須待熱至之後, 留吸而堅長也.

18) 疾呼子者, 實則瀉其子, 務待寒至之後, 去之速, 而嚏且短矣.

말고

한열, 風陰이나 飢飽와 大醉, 피로하면 자침을 금기하게.

【원문】 望⁽⁸⁶⁾不補而晦⁽⁸⁷⁾不瀉, 弦⁽⁸⁸⁾不奪而朔⁽⁸⁹⁾不濟.

【字句解】

(86) 望 : 보름 망.

(87) 晦 : 그믐 회. 음력의 매월 말일.

(88) 弦 : 半月. 반달. 上弦과 下弦.

(89) 朔 : 초하루 삭. 음력의 매월 1일.

【국역】

보름에는 補를 말고 그믐에는 瀉를 말며 반달 뜰 땐 탈취 말고 초하루엔 朏지 말게.

【원문】 精其心而窮其法, 無灸艾而壞其皮; 正其理而求其源, 免投鍼而失其位.

【국역】

마음을 정일하여 穴法⁽¹⁹⁾을 궁구하면 쑥뜸으로 피부를 상치 않고

이치를 바로잡고 病源을 탐구하면 자침할 때 穴位를 잃지 않네.

【원문】 避灸處而加⁽²⁵⁾四肢, 四十有九⁽²⁶⁾; 禁刺處而⁽²⁷⁾除六腧⁽⁹⁰⁾, 二十有二.

【校勘】

②5 而加 : 《類經附翼》에는 ‘和’로 되어 있고, 《鍼灸聚英》에는 ‘而和’로 되어 있다.

②6 九 : 《類經附翼》에는 ‘七’로 되어 있다.

②7 而 : 《類經附翼》에는 없다.

【字句解】

(90) 六腧 : 楊註에 ‘六腑之腧’라고 하였으니, 즉 背部에 있는 膽俞, 胃俞, 三焦俞, 大腸俞, 小腸俞, 膀胱俞의 腧穴을 말한다.

【국역】

뜸을 피할 곳은 사지를 더하여 49혈이요

침을 금할 곳은 六腧를 제하고 22혈일세.

【고찰】 「六腧」 : 《鍼灸大成校釋》에서는 楊註에서 ‘六腑之腧’라고 한 것과 달리 背部에 있는 肺俞, 心俞, 膈俞, 肝俞, 脾俞, 腎俞 등 6개 腧穴이라고 하였다. 또 고인들은 이 6개 腧穴에 대하여 ‘可灸不可刺’라고 인식하였으나 竇漢卿은 이 6개 腧穴을 禁鍼穴에 배열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였으므로 “禁刺處而除六腧, 二十有二”라 한 것이다²⁰⁾.

【원문】 抑又聞⁽⁹¹⁾高皇抱疾⁽⁹²⁾未瘥⁽⁹³⁾, 李氏⁽⁹⁴⁾刺巨闕而後⁽⁹⁵⁾甦; 太子⁽⁹⁶⁾暴死⁽⁹⁶⁾爲厥, 越人⁽⁹⁷⁾鍼維會⁽⁹⁸⁾而復醒. 肩井曲池, 甄權⁽⁹⁹⁾刺臂痛而復⁽⁹⁹⁾射; 懸鐘環跳, 華陀⁽¹⁰⁰⁾刺躄足⁽¹⁰¹⁾而立行. 秋夫⁽¹⁰²⁾鍼腰俞而鬼⁽¹⁰³⁾免沈疴⁽¹⁰³⁾, 王纂⁽¹⁰⁴⁾鍼交俞⁽¹⁰⁵⁾而妖精⁽¹⁰⁶⁾立出. 取肝俞與命門, 使瞽士⁽¹⁰⁷⁾視⁽¹⁰⁷⁾秋毫之末⁽¹⁰⁸⁾; 刺少陽與交別⁽¹⁰⁹⁾, 俾聾夫⁽¹¹⁰⁾聽夏蚋⁽¹¹¹⁾之聲.

【校勘】

②8 抑又聞 : 《類經附翼》에는 ‘昔聞’으로 되어 있다.

②9 後 : 《類經附翼》과 《鍼灸聚英》에는 ‘復’로 되어 있다.

③0 復 : 《類經附翼》에는 ‘卽’으로 되어 있다.

③1 鬼 : 《類經附翼》에는 ‘魂’으로 되어 있다.

③2 瞽士 : 《類經附翼》에는 ‘瞽者’로 되어 있다.

③3 視 : 《類經附翼》에는 ‘見’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91) 抑又聞: 또한 듣건대. 轉意詞이다. ○抑은 又也, 또한 억.

(92) 抱疾 : 抱病. 병을 지님.

(93) 瘥 : 病已好, 병 나을 채.

(94) 李氏 : 南北朝時期 魏나라의 李修가 아닌 沙門 姚僧垣의 鍼灸術을 얻었고 太醫令의 벼슬을 지냈다. 《魏書》에 “李修, 字思祖, 太和中, 常在禁內, 高祖文明太后時有

19) 穴法(혈법) : 穴道(腧穴)의 기능과 適應症과 그것의 사용 법칙.

20)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앞의 책. 211쪽.

大豫, 修待鍼藥, 治多有效.”라는 기록이 있다.

(95) 太子 : 號太子. 號은 周代의 나라 이름.

(96) 暴死 : 昏厥.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 假死상태.

(97) 越人 : 秦越人. 별명은 扁鵲이다.

(98) 維會 : 臍中. 神闕. 任脈에 속하며 禁鍼穴이다.

(99) 甄權 : 당나라 때의 명의.

(100) 華陀 : 字는 元化. 東漢 말기의 저명한 의사.

(101) 躄足 : 脚躄不能行.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지 못하는 것. ○躄은 앉은뱅이 벽. 넘어질 벽.

(102) 秋夫 : 徐秋夫. 南宋의 의사.

(103) 沈疴 : 고질병.

(104) 王纂 : 송나라 때의 의사.

(105) 交俞 : 未詳. 《醫學入門》²¹⁾의 王纂條에 “治一女子每夜, 被癩精假作其夫迷惑, 鬼穴一鍼, 癩從穴出.”이라고 하였는데, 鬼穴은 十三鬼穴 또는 風府穴이다.

(106) 妖精 : 요괴. 도깨비.

(107) 瞽士 : 소경. ○瞽는 盲目, 소경 고. 먼눈 고.

(108) 秋毫之末 : 가을철에 새로 자란 짐승의 가는 털을 ‘秋毫’라 하니, 짐승 털의 뾰족하고 가는 끝을 말한다.

(109) 少陽與交別 : 少陽經穴과 交會穴, 別絡之穴(絡穴)을 가리키는 것 같다.

(110) 聾夫 : 귀머거리.

(111) 夏蚋 : 여름철 모기. ○蚋는 蚊也, 모기에.

【국역】

고황제가 병을 앓아 낫지 않았는데 이씨가 ‘거quil’에 자침한 뒤 깨어났고

곽태자가 暴死하여 尸厥이 되었는데 월인이 ‘유회’에 자침하여 소생했네.

‘견정’과 ‘곡지’를 건권이 臂痛에 자침하니 활을

쏘고

‘현중’과 ‘환도’를 화타가 躄者에 자침하니 걸어 갔네.

추부가 ‘요수’에 자침하니 귀신이 고질에서 벗어났고

왕찬이 ‘교수’에 자침하니 요정이 곧바로 달아났네.

‘간수’와 ‘명문’을 자침하면 소경도 터럭을 볼 수 있고

‘소양’과 ‘교별’을 자침하면 농아도 모기소리 듣는다네.

【원문】嗟夫⁽¹¹²⁾! 去聖⁽¹¹³⁾逾遠⁽¹¹⁴⁾, 此道漸墜. 或不得意⁽¹¹⁵⁾而散⁽¹¹⁶⁾其學, 或愆⁽¹¹⁷⁾其能而犯禁忌. 愚庸⁽¹¹⁸⁾智⁽¹¹⁹⁾淺, 難⁽¹¹⁹⁾契⁽¹¹⁹⁾於玄言⁽¹²⁰⁾; 至道⁽¹²¹⁾淵深, 得之者有幾? 偶述斯言, 不敢示諸明達⁽¹²²⁾者焉, 庶幾⁽¹²³⁾乎童蒙之心啓⁽¹²⁴⁾.

【校勘】

③4 愆 : 《類經附翼》에는 ‘幸’으로 되어 있다.

③5 愚庸 : 《類經附翼》과 《鍼灸聚英》에는 ‘庸愚’로 되어 있다.

③6 智 : 《類經附翼》에는 ‘知’로 되어 있다.

③7 難 : 《鍼灸聚英》에는 ‘能’으로 되어 있다.

③8 偶述斯言 …… 心啓 : 《類經附翼》에는 없다.

【字句解】

(112) 嗟夫 : 감탄사. 發語詞.

(113) 聖: 여기서는 古代의 名醫를 가리킨다.

(114) 逾遠 : 까마득히 멀. 아주 오래 됨.

(115) 不得意 : 뜻을 얻지 못함.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음.

(116) 散 : 懶慢, 게으름 산.

(117) 愆 : 過失, 허물 건. 差錯, 어그러질 건.

(118) 愚庸 : 어리석고 용렬함.

(119) 契 : 刻也, 새길 계.

(120) 玄言 : 현묘한 말. 심오한 이치.

(121) 至道 : 지극한 도. 지극한 이치.

21) 李梴, 國譯編註醫學入門(1권), 南山堂, 1982, 81쪽.

(122) 明達 : 지혜가 밝아서 사리에 통달함.

(123) 庶幾 : 바라건대. ~하기를 바란다.

(124) 童蒙之心啓 : 幼兒無知를 童蒙이라 부른다. 蒙은 微昧暗弱의 뜻이다. 여기서 童蒙은 鍼灸의 初學者를 비유한 것이다. 처음 鍼灸를 배우는 사람의 마음을 계발한다는 뜻이다.

【국역】

아아!

성인은 떠난 지 오래고

鍼道는 점점 떨어졌네.

혹은 뜻대로 되지 않아 배움에 게으르고

혹은 능력을 잘못 써서 금기를 범하였네.

어리석고 지혜가 얕으니 현묘한 말을 새기기 어렵고

지극한 도는 깊고 깊으니 터득한 자 그 몇인가?

우연히 이 글을 지었으나

명달한 사람에게 보이지 못하고

동몽의 마음을 계발하기 바랄뿐이네.

IV. 결 론

1. “一日取六十六穴之法”은 子午流注法 중에서 納干法을 말한 것이고, “一時取十二經之原”은 子午流注法 중에서 納支法을 말한 것이다.
2. “視沈浮而辨臟腑之寒溫”에서 沈浮를 莊育民은 ‘脈의 浮沈’로 보았고 楊繼洲는 ‘得氣의 浮沈’로 보았는데, 脈과 得氣를 같이 참고하여 寒熱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背目沈招, 生臥平而沒昏”에서 ‘生臥平’은 ‘坐臥平’으로 고쳐야 옳다. 楊註에 “或臥或坐”라고 한 것을 보면 楊의 依據本에도 ‘坐’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陰躄陽維而下胎衣”에서 陽維는 翁堂《類經附翼》에 의거 ‘陰維’로 고쳐야 하고, 따라서 照海

와 內關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禁刺處而除六腧, 二十有二”에서 六腧를 楊註는 ‘六腑之腧’라고 하였으나 《鍼灸大成校釋》에서는 肺俞、心俞、膈俞、肝俞、脾俞、腎俞 등 6개 腧穴이라 하고, 또 고인들은 이 6개 腧穴에 대하여 ‘可灸不可刺’라고 인식하였으나 竇漢卿은 이 6개 腧穴을 禁鍼穴에 배열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여 “禁刺處而除六腧, 二十有二”라 말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楊繼洲. 原本鍼灸大成. 대구 :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2.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鍼灸大成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3. 林昭庚. 新鍼灸大成.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4. 高武. 鍼灸聚英.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5. 李梴. 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 : 南山堂, 1982.
6. 張景岳. 類經圖翼(類經附翼). 서울 : 大成文化社. 1982.
7. 安徽, 上海中醫學院. 鍼灸學辭典.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0.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 民衆書林. 1997.
11. 徐復 등. 古漢語大詞典. 上海 : 上海辭書出版社. 2003.
12. 成樂箕. 八十一難經解釋(難經集註). 서울 : 高文社. 1982.